완충기의 중심 과업은 농촌 기계화이다 !

최 영근 그림

3 - AUG - 9
Copy 1960

화살

1959년 12월 하반호 (116)

승리의 1959년도를 보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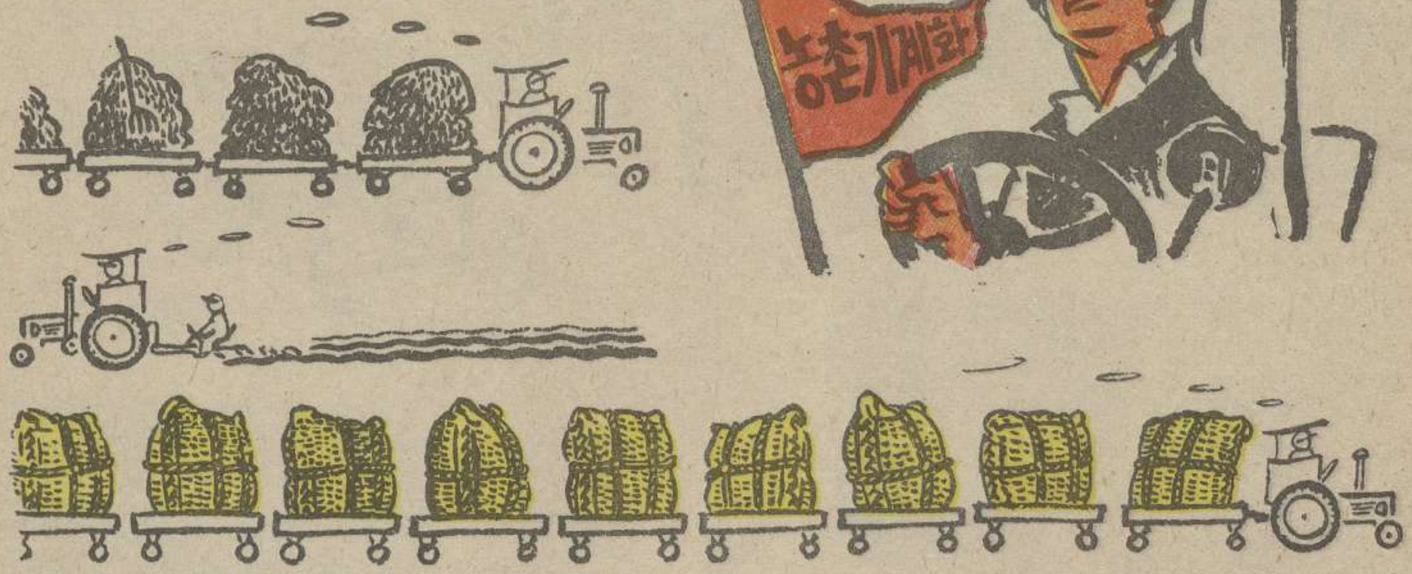
림 팔수 그림

농촌 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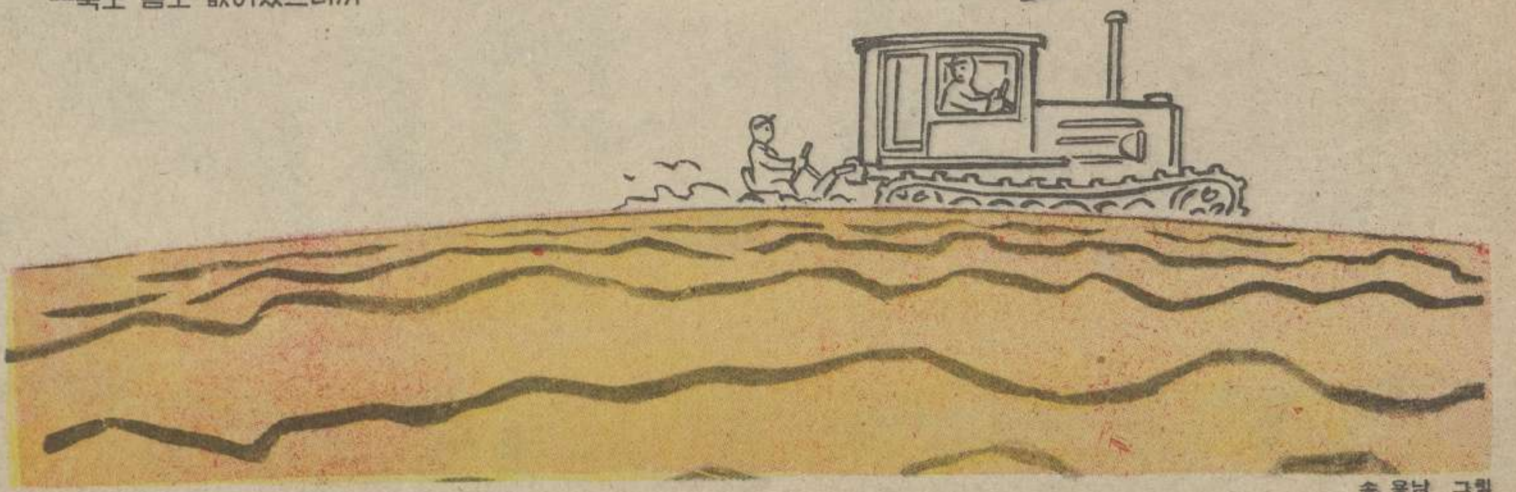
힘 장수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합세

혼자서 백을 당해 낸다



—평평한 것이 바다 같군
—뚝도 흠도 없어졌으니까



송 웅남 그림

지방 정권 기관들의 경리 활동에서 계획화 수준을 더욱 높이자!

《현실도 보고》

《의견도 듣고》

《계획을 세웠다》

최 영근 그림

허공에 뜬 계획 위원회 사업

〈일년 대계는 봄에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타산과 계획과 조직 사업들이 서로 맞물고 돌아야 살림살이가 폐워질 수 있다는 뜻과 상통한다.

그런데 은산군 인민 위원회 계획 위원회에서는 지난 날에 우에서 내려 오는 계획을 쪼개서는 할당하는 〈계산기〉 역활에 불과하였다.

금년 봄에 봄소채 파종 계획을 시달할 때 일이다.

당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다.

〈봄소채 같은 것은 수요에서 일정한 계절적 제한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계단식으로 파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때 계획 위원회 위원장의 머리에서는 단 외고지 타산만이 앞섰다. 그래서 다른 조건과 가능성들은 계산 밖에 있었다. 〈사철 소채를 떨구지 않고 공급하려면 한꺼번에 충족한 계획이 서야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굳은 신념이였다. 그래서 계획 위원장은 계단식이란 뜻이 곧 〈수요 충족〉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였다.

계획 위원장께서 이런 짧은 생각만 나올 수 있는 데는 다른 객관적 조건들도 작용했다. 하루에 4시간 학습을 태공한 데서 정치 경제학 공부가 들숭날숭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도 그렇거니와 그보다도 〈일인 이역〉의 활동을 하는 사정이 그렇게 되게 하였다.

계획 위원장이 자기 일도 분주한데다가 농업 기술부 일이며 때로는 문화 선전부 일까지 맡아 보아야 하는 판에 모든 계획들이 부문간에 서로 맞물리게 세우자면 정력과 시간의 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은산군 계획 위원회 사업은 어떤 폐단들을 빚어 내였는가?

첫째 결함은 수요 연구가 잘 못된 계획이 세워진 데서 나타났다.

계획 위원회는 봄나물, 안천 호박, 오이 같은 봄소채를 거의 동시적으로 파종하게끔 계획을 시달하였다.

이래서 봄날 한철에는 〈소채 풍년〉을 만나서 야단 법석을 쳤었는데 또 어떤 철에 가서는 호박은 채화되고 오이는 고갈되는 폐단들이 산생되였다. 그러다가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근 두달 지경이나 은산군에서 소채와 오이를 구경할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군에서는 평양 농장에 가서 기차판으로 날라다가 소채 공급을 하게 된 사실까지 있었다.

봄소채 파종 계획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바람에 공급 계획이며 소비 계획들이 몽땅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형편과 관련하여 군 인민 위원회 지도부에서는 계획 위원장에게 톡톡한 책망을 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일인 이역》의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계획 위원장께서는 봄소채 파종 계획에서 얻은 교훈을 가을 소채 파종 계획에다 살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짚 그물로 고기를 잡는》식으로 가을 소채 파종 계획이 세워졌다. 그런 계획에 토대해서 무와 배추는 7대 3의 비례로 《파종 만세》를 불렀다.

겨울 김장을 마련할 때가 박두하였다. 신창 탄광과 은산군내 로동자 사무원 부양 가족들은 조미료(고추, 마늘)와 배추 해결을 위해 멀리 뛰지 않고서는 월동 준비가 난처해졌다. 이와 꼭 같은 일은 지난번 피마잠 생산 계획을 세울 때에도 있었다. 이때에도 계획 위원회는 은산군에서 피마주 파종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서는 뒤덮어 둔채 도에서 내려 온 피마잠 매수를 일률적으로 쪼개서 협동 조합에다 할당하였다. 그리고 난 얼마 후에 수덕리와 은산읍 녀성 조합원들이 순천군까지 뛰였다는 소식이 군에 올라 왔다.

피마잠 생산 계획을 달성하고자 멀리까지 뛴 녀성들의 열성은 좋았으나 엉터리 계획을 내려 보낸 계획 위원회 사업은 반성할 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체육 지도 위원회가 월중 사업 계획에 예견하지 못했던 녀성들의 《달리기 운동》을 1년에 두번씩이나 조직한 셈이였다.

그러나 계획 위원회는 지난 사업이 허공에 떠돈다는 것을 각성할 단계에 이르렀다. 금년도 은산군 알곡 생산 계획 실행은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주고 있다.

금년 봄에 계획 위원회가 알곡 생산 계획을 세울 때 일이였다. 구체적 실정은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로력 발란스, 자급 비료 생산 계획, 기계화 도입이 가능한 대상 면적들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줄 것을…》

그랬지만 계획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산출 기초도 없이 덮어 놓고 10만 톤이란 허풍 수'자를 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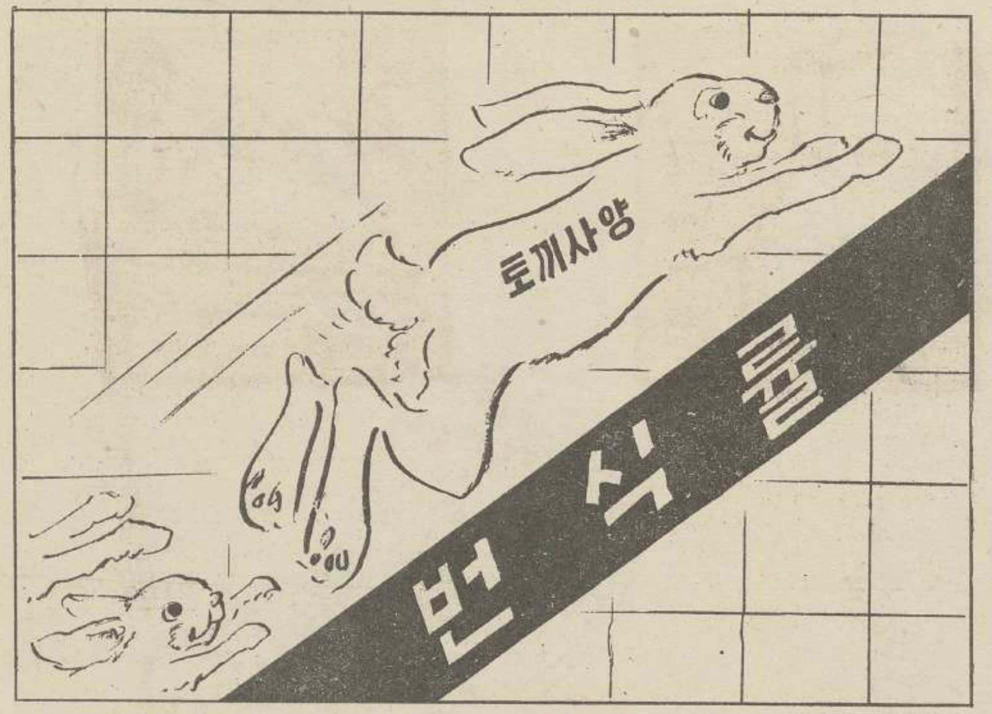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찾게 되였다. 그러니까 또 무턱대고 4만 톤으로 축소해 버렸다.

그런데로부터 옥수수 같은 작물은 밀식을 하게 되는 조건에서 자급 비료 생산 계획과 파종 계획이 맞물고 떨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계획을 세우다 나니 비료 맛을 덜 본 옥수수는 왼통 숫강냉이로 이삭이 나와 버렸다. 이래서 금년도 은산군에서 알곡 생산은 계획의 61%로써 결산 분배를 맞이하였다.

서 득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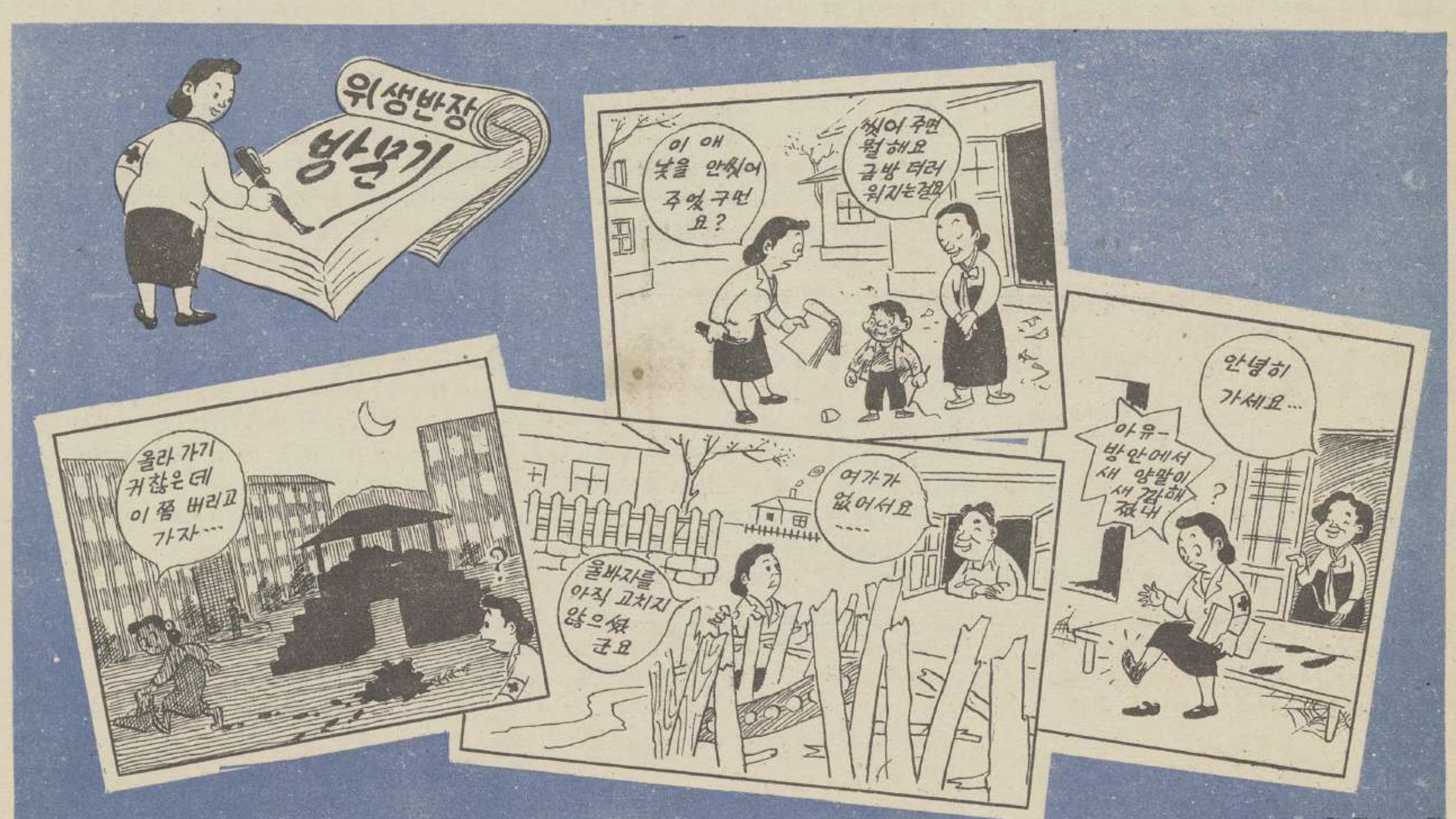
돼지와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르자!

오르는 데는 내가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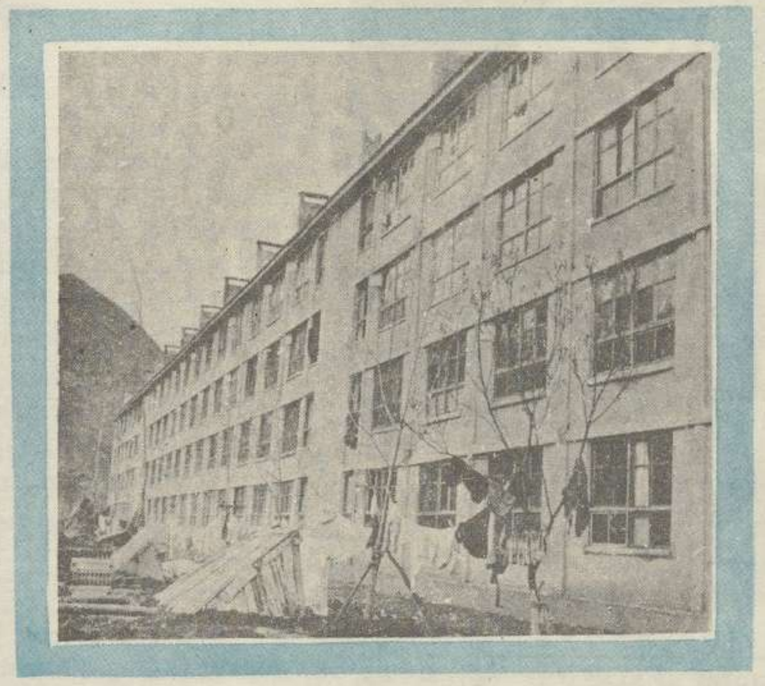
삼수 종축 목장 토끼 사양공 장 일순 동무는 금년 1월 에 어미토끼 10마리를 가지고 생산을 시작하여 11월말 까지 4, 431마리의 토끼를 생산 육성하였다

백 인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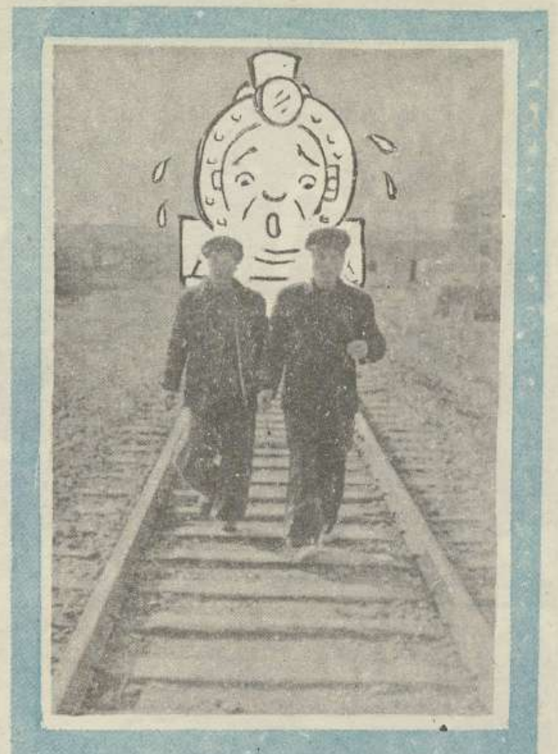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덕천 자동차 공장 아빠트에서



《허가》 있는 통행자



기관차—당신네들부러 규정을 지켜주시요!

송 시엽 그림

년말《선물》

—당신에겐 이 선물이 가장 적당할 것 같소

송 시엽 그림

미제가 조작하는 민족 경제의 파산 정책의 결과로 남조선의 중소 상공업자들은 계속 몰락의 일로를 걷고 있다.

망하는 판에 먹자 놀음

라 일봉

경상 남도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리 승만 도배의 고위층들의 유흥 놀이가 끊어질 날이 없다.

그런데 최근 이 유흥장에 괴뢰 고위층의 질탕한 유흥 행각이 더욱 잦아서 배곯는 백성들의 원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 괴뢰 정부의 한 《장관》이 이곳에서 《사'도 행차》를 방불케 하는 유흥 놀이를 친 뒤를 이어 리 모라는 소위《국회》의원이 역시 이곳에서 장구 소리와 기생들의 아츠러운 노래 소리 속에 며칠 밤을 새웠다.

그 후에는 《자유당원》이며 현 괴뢰《국회》의원인 김 모라는 자가 부산《세관》에서 압수한 밀수품을 도적질하여 방매한 돈을 메고 이 불국사로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이나 하듯이《도 지사》《도 의원》나리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도 경비》를 훔쳐내 가지고 이곳 불국사 석굴암에 맞붙여 지어 놓은《청운장》《송죽관》등 《기생'집》들을 모조리 점거하고《천인혈의 금준미주》로써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있다.

《자! 각하, 한잔 더 드시오,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소—》

《옳소이다. 모두가 먹고 보자는 판인데 우리들만 점잖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번 국정 감사에도 걸려 들지 않은 것이 다행입지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량반들이 해먹은 횡령, 착복, 사기, 강탈, 협잡 등 사건들에 대한 목록을 기록한 서류만두 세대의 트럭에 싣고도 남을 지경으로 들어 났다는뎁쇼!》

《그러기에 리 승만 대통령께옵서 대한민국 관리들을 일일이 감찰하면 9할 9부 이상 걸려들 형편이랍시면서 종래의 감찰 위원회를 없애 버린 것도 현명한 조치였지요》

《자, 한잔 드소, 남의 이야기는 아니요》

《그런데 지사 각하! 요즘 뜬 소문을 듣자니 우의 량반들이 외국에다 가장집물을 슬슬 빼 돌려 놓는다는데 그게 진짜 소문인지요?》

《그걸 뭘 새삼스럽게 묻고 있소. 다 앞날을 위한 게 아니겠소. 자! 한잔 드시오》

질탕하고 추잡한 유흥은 의연히 시간 가는줄 몰랐다.

요 며칠 전에는 또 경상 남도 진해 《별장》에서 로구 리 승만과 그의 애첩 애리스를 중심으로 괴뢰 정부《고관》들의 풍수해 피해지구 소위《시찰 위안》의《성찬》이 베풀어졌다.

바로 100만의 리재민들이 주림과 추위와 병마에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남조선 잡지 《신태양》이 《특권배들이 주지 육림 속에 노래 부르고 있을 순간에 국민 대중은 울고 불고 발버둥치며 매말라 가고 있지 않는가!》고 통탄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원래 리 승만 매국 집단의 본질로부터 출발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단지 최근 시기에 이르러 더욱 추잡하기 이를 데 없어졌고 그 부패가 극도에 달하여 가일층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일 뿐이다.

그것은 그들의 종말이 더욱 가까워 오고 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인 것이다.

리 승만과 그의 애첩 애리스가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낸 자금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실은 오늘에 와서 비밀이 아니다.

《동아 일보》까지도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버림 받은 리 승만 도배의 이러한 추악한 정상을 6억 중국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고 대만 일각으로 도망을 치던 직전의 장 개석 도당의 그것과 비기였던 것이다.

고향을 등지고………

남조선 출판물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추수를 갓 끝낸 농민들은 리 승만 도배에게 <토지 수득세> <농지 상환곡> <수세> 등 각종 세금 략탈로 인하여 추운 겨울을 앞두고 정든 고향을 등지는 리농가가 늘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허 능택 그림

의연금인가? 략탈금인가?

최근호 남조선 출판물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리재민들에게 리 승만 도배는 그들을 구제할 대신에 소위 《구제비》 《의연금》 이라는 명목으로 략탈만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리재민—의연금이 온다

경찰—의연금을 내라!

추수 마당에서 절량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 남조선의 근로 농민들은 빚으로 농사를 지으며 각종 명목으로 가혹한 략탈을 당하고 있으니 추수 마당에서 절량이 되는 형편이라고 한다.

허 능택 그림

땅 도적놈들의 행패

리 철희

리 승만 도당은 자기들의 무너져가는 지반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며 인민들을 더 한층 략탈하기 위해서 중파 무당 나부랭이까지 앞잡이로 리용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초겨울 어느날 경상 남도에 있는 해인사 부근 마을에서 있은 일이다.

마을 한구석에 납작하게 붙은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 집 문 밖에서 별안간

《김 서방 있소?》 하는 서슬이 등등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오?》

람루한 옷을 걸친 집 주인은 마사진 문짝을 조심스레 열면서 퉁퉁 부은 누런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자 잔뜩 배를 내밀고 문밖에 서 있던 중이 집 주인한테 불쑥 서류를 들여 대더니 서류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다 도장을 찍으시오.》

《아니 인젠 해인사가 관청이 되였소? 허 나중엔 별꼴 다 보네》

《잔말 말고 도장이나 빨리 찍으란 말이요》

《대관절 뭔데요?》

《농토를 해인사에 반환하는 걸 승락한다는 동의서야, 세금 딱지는 아니야!》

《아니 심심 산'골 어둑 컴컴한 불당에서 념불만 외우다가 머리가 좀 돌지 않았소?》

《뭐야 무례한 수작을…》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조상 때부터 해인사 중놈들의 소작인 노릇을 해 왔지만, 우린 5년이나 〈농지 상환곡〉인가 뭔가 하는 걸로 해마다 지어 놓은 곡식을 몽땅 빼앗기고 쌀밥이란 어떻게 생겼던지 잊어버린 형편이요. 짐승처럼 초근 목피로 살면서 겨우 〈농지 상환곡〉을 다 갚았소. 땅 값을 몇배씩이나 빼앗아 먹은 건 누구요? 누가 당신네 땅을 그저 가졌소? 흥! 반환을 승락하는 동의서? 엑기 이 중놈! 불전에 날강도질해 먹으라고 했어?》

농민은 점차 언성을 높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안내놓을라구 한대두 되는 줄 알아? 리 승만 대통령께서 요즘 국내 사찰들께 특령을 내리셨는데 〈분배〉한 농토라 할지라도 도루 사찰 소유지로 만들라고 지시했소》

《그 따위 망녕된 특명을 등에 업고 땅 도적질해 먹을라고? 공것 먹을라면 머리를 깎고 절에 간다더니… 엥이, 듣기만 해도 재수가 없네》

《이 거렁뱅이 머슴이 대통령 특명을 위반하려 드네, 적색 분자로 몰리워 묶이워 가고 싶어?》

《원 아무리 무법 천지라도 땅값 다 빼앗아 먹은 땅을 도루 내 놓으라는 경우가 어디 있소? 좌우간 도장은 못찍겠다》

이런 광경은 경상 남도 합천군 가야면 내 280세대의 농가들에서 거의 꼭 같이 되풀이 되였다.

중들은 경찰까지 데리고 다니며 개벼룩 씹듯 아래우'이'발을 떡떡거리면서 행패질하였다.

《개자식들! 그러다간 극락은 커녕 지옥 밑바닥으루나 가겠다. 미국놈 본을 딴것 같애. 그렇게 생억지로 도적질해 먹으려고 덤비는 걸 보니》

《미국놈의 똥개 노릇하는 리 승만은 중놈의 후손인가베》《좌우튼 먹겠다고 덤비는 놈들에게 그저 먹히우겠소? 그놈이 그놈이겠지만 괴뢰 정부에 진정을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해 봅시다. 땅을 빼앗겼다간 무리죽엄 나겠소》

《옳소!》 280 세대의 농민들이 항거의 주먹을 휘둘렀다.

며칠 후 5년동안이나 《농지 상환곡》을 빼앗긴 그들은 13만 7천 9백여평의 이른바 분배 농지를 옛지주인 해인사가 도루 빼앗으려는 책동을 즉시 중지하라는 공동 명의의 「요구서」를 괴뢰 당국에 제출했다. 허나 《3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국가 보안법에 규정되여 있는데 왜 작당하여 행패질 하느냐》고 괴뢰 경찰은 농민들을 구타하고 위협하며 마을에 개싸다니듯 들락날락했다.

《중은 리 승만의 앞잡이야, 그러니 리 승만이를 반대해야 돼》

물러서면 죽엄의 나락뿐인 농민들은 괴뢰 경찰까지 끼고 우심해지는 해인사 중놈들과 괴뢰 당국의 행패에 목숨을 걸고 항거하고 있다.

풍전 등화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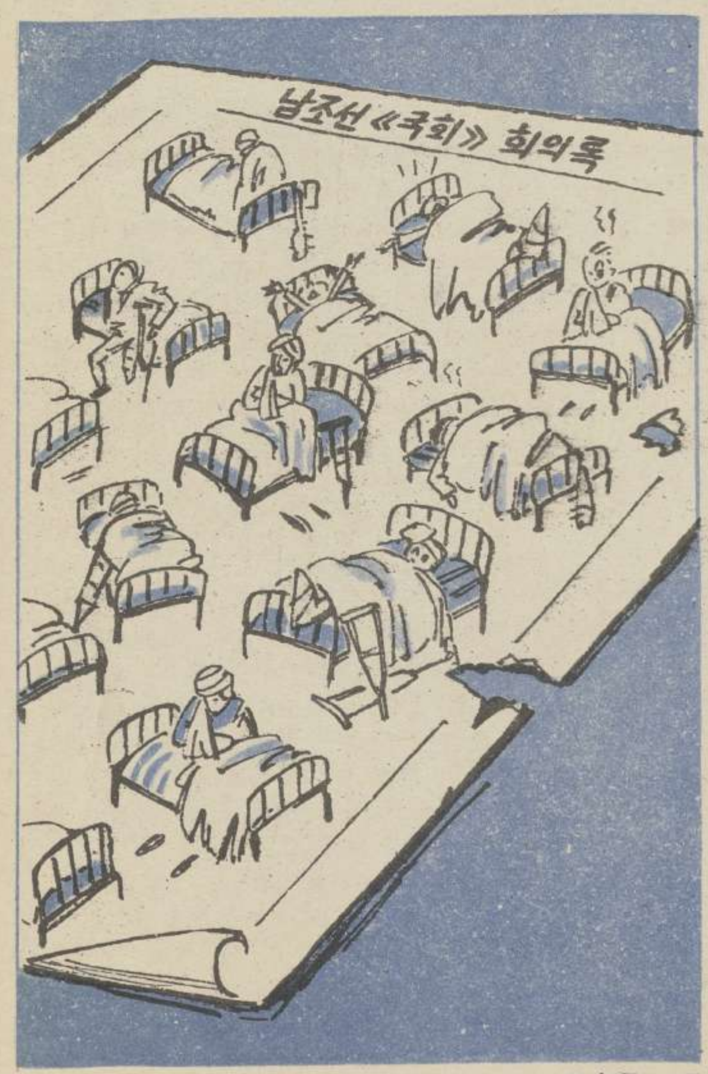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전대 미문의 악법인 《신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일제시의 캐캐 묵은《총독부령 120호》와 미 군정 《법령》 88호까지 들추어 내여 언론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새해 준비

허 능택 그림

몽땅 삼킨다

송 시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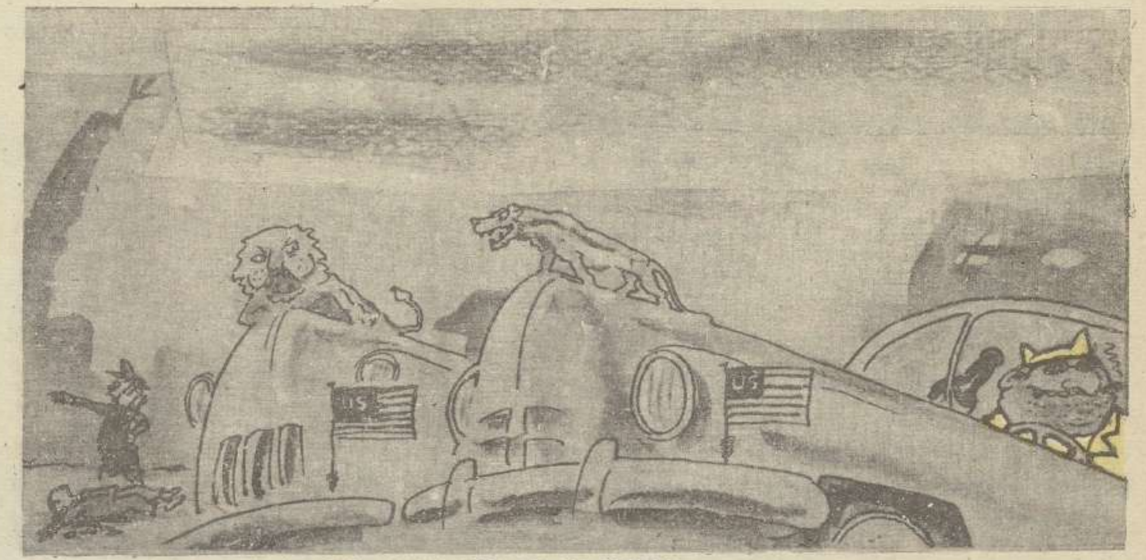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파멸의 길로

백 인균 그림

맹 사격

야수들의 무용담



—오늘 조선 아이 둘 해 치웠네
—그건 약과야, 아직 날 따라올라면 멀었어

상전과 주구의 망년 연회

백 인규 그림

사탕 발림

꼬리에 불이 달렸다

백 인규 그림

《수사비》

오 흥락

김 태연은 도난 신고를 낸 사흘 후에 종로 경찰서로부터 호출장을 받았다.

경찰서에서 출두 통지서를 받는다는 것은 몸에 소름이 끼치는 노릇이다. 경찰에 한번 걸리거나 주의를 받게 되는 날이면 화를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도난 신고를 낸 후이므로 혹시 잃은 물건을 찾아 가라는 소식이라도 있을가 하여 경찰서를 찾아 갔다.

수사계 문을 열고 들어 갔을 때 마침 도난 신고를 접수한 박 순경이 책상 머리에 앉아 있었다.

《나리님 안녕하셨습니까》하고 김 태연이 인사를 했을 때 순경놈은 빤히 얼굴만 쳐다보더니 《넌 뭐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저를 찾지 않았습니까?》

《뭐? 네 이름이 뭐냐?》

김 태연은 호주머니 속에서 아침에 받은 호출장을 책상 우에 내 놓았다.

《어, 네가 시계를 도적 맞혔다지. 대낮에 눈 뜨구 도적은 왜 맞히구 경찰에 와서 이 성화냐, 응》

《권총을 내미는 판이 돼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 다섯 개를 도적 맞혔다는데 네게 무슨 시계가 그렇게 있는거냐 응》

《네, 시계 수리를 해서 사는거죠, 손님의 시계를 맡은 것을 몽땅…》

《그래, 그 강도는 명동 깡패에 속한 놈이 분명하냐, 응》

《네, 이 눈으루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럼 수사를 해 볼텐데 수사비로 2만환만 가지구 오너라》

《넷, 수사비라니요?》

《임마, 경관들은 밥두 안먹구 이 지랄을 허는 줄 아느냐, 수사비두 없이 어떻게 물건을 찾는다는 거냐, 응》

김 태연은 황당한 일이였지만 시계를 찾아야 하겠으므로 다시 되물었다.

《그럼 2만환을 가져 오면 시계를 찾아 주시겠나요》

《임마, 경찰관을 어떻게 보는거냐》

김 태연은 하는 수 없이 2만환의 수사비를 바치고 기다렸다. 1주일이 지났다. 시계를 맡긴 손님으로부터 성화 같은 독촉을 받았다. 하는 수 없이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나리님, 도난 당한 시계가 어떻게 됐는지요》

《응, 거의 단서가 잡혔는데 수사비가 모자라서 수사를 중단하고 있는 참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뭘 어떻게 해, 수사비가 모자라니 래일이라두 3만환만 더 가져 오게, 경찰 수사두 밑천이 들어야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도제 2만환 가지구야 어느 코에다 바르겠는가, 응》

《나리님 저희두 죽물이나 겨우 먹는 처진뎁쇼, 이번의 도적 바람에 변통할 재간이 없습니다》

《뭐이, 그럼 어떡허란 말이냐, 단서를 거의 잡았는데 이제 와서 수사를 포기하란 말이냐, 응.》

김 태연은 뭐라구 대답할 수가 없었다.

《시계를 찾겠거든 3만환을 더 가져와, 이제 와서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경찰관을 조롱하는 거야, 알겠니, 응》

김 태연은 이틀이나 걸려 겨우 3만환을 마련했다. 이미 2만환 돈을 밀어 넣었으니 이제 중단하게 되면 시계 뿐만 아니라 2만환까지도 몽땅 떼우는 판이다.

《수사비》의 추가로 3만환을 바친지도 또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경찰서로부터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또 경찰서로 찾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리'님 시계를 찾았는지요.》

《임마, 도적놈 잡이가 그렇게 밥 먹듯 되는 줄 알어, 잔 소릴 말구 기다려 응.》

《손님들의 독촉이 너무 심해서…》

《수사를 빨리 하겠으면 수사비가 더 있어야 돼.》

김 태연은 어이가 없었다.

《아니 5만환 돈이나 바쳤는데요》

《임마, 지금 돈 5만환이 그렇게 많은 줄 알어》

이때 김 태연은 순경놈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보았다. 분명히 자기가 도적을 맞친 것이 틀림 없었다.

《아니 그 시계가…》

《뭐, 이 시계가 어쨌단 말이냐, 응》

순경은 눈을 부라렸다.

《금 시계로서 그만큼 큰 것은 드문 데요. 제가 도적 맞친 시계가 바루 그런 것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순경놈은 김 태연의 귀'빰을 후려 갈겼다.

《임마, 뭐이 어째, 그래 내가 도적이란 말이냐》

《아니 그 시계가…》

《비행기 맛을 봐야 알겠니》

김 태연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발'길과 주먹이 련달아 들어 왔다.

김 태연은 고문실에 끌려 가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대한 석탄 공사》 산하 달성 광산 로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 당한 로동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비롯한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켰으며 대구 지구 5개 방직 회사 로동자들은 강력한 항거와 태업 투쟁 등을 전개하여 밀린 임금을 모조리 받아 내였다

김 동철 그림

더 큰 위기

—위기다!

—번영이여! 날 살려 다우

—으악!?

최 영근 그림

뒤집어진《지위》

아이젠하워—당신은 미국 외교관으로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무엇을 했소
외교관—보시는바와 같이 맞았습니다

최 영근 그림

무식과 무례

로 순철

쩨이론 주재 미국 대사라는 자가 그 나라 총리 대신에게 신임장을 봉정할 때 상대방 이름을 대지 못하여 봉정사를 하다 말고 거의 일분간이나 우물거리다가 말았다는 사실이 세계의 웃음'거리로 된 것은 지난 5월에 있은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보다 못지 않는 또 하나의 웃음'거리가 생겨서 미국의 외교사를 《빛나게》하고 있다.

지난 11월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인 기니아의 정부 대표단이 워싱톤에 도착하자 미국 부대통령 닉슨, 국무 장관 허터가 얼굴에 간교한 웃음을 띄우고 기니아 정부 대표단 단장인 대통령 겸 총리 대신 토르를 마중하였다.

《대통령 겸 총리 대신 각하, 우리 미국은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대표인 당신들을 친형제처럼 열렬한 심정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은 닉슨의 말이다. 토르는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그러나 닉슨은 《친형제》와 얼른 악수를 하고는 흰 손수건으로 공공연하게 자기 손을 씻는 것이였다. 토르가 낯을 찌프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토르 씨, 닉슨 부대통령은 최근 손을 앓고 있습니다》하고 옆에 섰던 허터가 황급히 변명을 하면서 《대통령 겸 총리 대신 각하, 저 비행장에 나부끼고 있는 수 많은 기니아 국기들을 보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우리 미국이 당신의 나라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 가를 잘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자랑을 하였다.

《그러나 허터 씨》하고 기니야의 대표단 단장은 의아쩍은 듯이 물었다. 《혹시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시각에 다른 또 하나의 정부 대표단이 도착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오직 당신들 기니아 뿐입니다》

《그러나 닉슨씨와 허터씨, 저 비행장에 나부끼고 있는 기'발들은 우리 기니야 국기가 아니라 확실히 가나 공화국 국기 같은 데》

아닌게 아니라 미국 관리들은 비행장에 모두 아프리카의 다른 독립 국가인 가나의 국기들을 달아 놓았던 것이다.

얼굴이 창백해진 닉슨은 당황하여 변명하였다.

《이러나 저러나 아프리카 나라의 국기인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풀이 죽은 허터는 곤궁에서 빠져 나오려고 발악하면서 중얼거렸다.

《대통령 겸 총리 대신 각하,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당신의 나라가 너무나 어린데 죄가 있지 않을까요…?》

중국 "만화 잡지"에서 전재 방성 그림

목전이 급하다

랭전 고취자의 과세

1960—할아버지 랭장고에 웬 사람들인가요?
1959—그 미친 랭전 고취자들이 과세하고 있단다

《미국식 문화》가 빚어낸 후과

리 용남 그림

들어난 검은 배꼽

미제는 유엔 14차 총회에서 또다시 자기 졸개들을 발동시켜 남조선을 영원한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흉책을 꾸미였다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010
발행 1959. 12. 29
(값40전)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д. 19/21
посольство США

어머니 조국의·품안으로
8034

Хвальсаль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51 1